

신입생과 교양교육

주 인 기 | 연세대 학부대학장

I.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육의 특성을 고려하면, 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은 해당 전공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더불어 대학이 담당해야 할 중요한 임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간의 흐름을 돌이켜보면, 대학이 교양교육의 소임을 다했다고 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단지 졸업을 위한 필수학점으로 정해 두는 장치 이외에 질 높은 교양교육을 위한 장치가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1세기는 특정 전공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정보화·세계화 추세에 적응할 수 있고 학문간 응용 능력을 갖춘 지식인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 또한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적합한 교양교육을 통해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지도자 양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교양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이 자기 인생을 스스로 설계하고, 그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양교육을 통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끊임없는 자기 계발이 가능하도록 평생교육의 기초를 확립할 수 있어야 한다. 기초교육으로서의 교양교육은 전공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핵심교육(Core Education)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러

한 핵심교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교양교육을 전담하는 교육기관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적인 학사지도체제(Academic Advising System)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의 교육 환경은 대학교의 교육 환경과 매우 차이가 난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생활 환경이 일시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환경이기보다는 강제적으로 공부하는 환경이다. 생활 스케줄도 스스로 결정하기보다는 부모님과 학교가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이러한 티울적인 환경에서 일주일에 보통 18시간 강의 시간만 빼놓고는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자율적인 환경으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급격한 환경의 변화는 많은 학생들을 대학에 입학한 뒤 1년 내지 2년 동안 방황하게 만들고, 일부 학생은 대학 생활에 적응을 못하여 낙오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학생들이 급격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대학 재학 기간을 자기의 잠재력을 최대로 키우는 기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대학에 전문적인 학사지도 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연세대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양교육과정을 소개하면서 바람직한 교양교육 운영

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고, 또 성공적인 대학 생활 적응을 위하여 신입생들에게 필요한 전문가적인 도움을 주는 학사지도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II. 학부대학 설립

연세대는 2000년 모집단위 광역화를 실시하면서 신입생의 교양교육과 학사지도를 전담할 학부대학을 설립하였고, 교양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재편하였다. 학부대학은 6개 계열로 입학한 신입생이 전공 교과과정으로 진입하기 전 2학기 또는 3학기 동안 소속되는 단과대학으로써 신입생의 교양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기관이다. 학부대학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문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공선택권을 확대하며, 창조적이고 도덕적인 인간 계발을 위해 학사지도를 내실화 하는 것을 그 목표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그간 교양필수와 교양선택으로 구분된 교양 교과목을 학부기초, 학부필수, 계열기초, 학부선택, 전공탐색 영역으로 재편하고, 각 영역별로 개설 교과목을 확대·다양화하였다. 이는 그간 실질적인 운영 주체 없이 해당 학과의 이해관계에 의해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던 교양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핵심교육으로서의 교양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학부대학에서는 교양교육 관련 위원회를 각 영역별로 구성하여 상시적이고도 전문적인 자체 점검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워크숍 및 세미나를 통해 효율적인 강좌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세대학교에서 설정한 교양교육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는 미래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평생교육의 기반을 학생들이 확립하도록 함에 있으나 세분하여 보면,

- 개성을 진작하고 남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

적 능력 배양

- 자신의 전공과 다른 전공을 연계시킬 수 있는 학문간 응용 능력의 배양
- 자신의 전공을 우리 사회의 문화적인 토양에 접목시킬 수 있는 실천의식 배양
- 정보화·국제화 등 사회 변화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적응 능력 배양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둘째, 다양한 학문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다중전공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강의 내용을 충실하게 함에 따라 학생들의 부담이 너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졸업학점을 126학점으로 하향 조정하고, 또한 다양한 학문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공 최소이수학점을 36학점으로 낮추었다. 이에 따라 입학계열에서 하나의 전공을 선택한 후, 계열에 관계없이 또 하나의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또한 학문의 영역간 유기적 통합과 다변화·다양화를 기조로 전개될 21세기 사회에 대한 대학의 적극적인 대응의 방안으로 12개의 연계전공을 개설하였으며, 이를 이중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운영중인 연계전공에는 유럽지역학, 영상예술학, 한국학, 중국학, 미국학, 일본학, 외교통상학, 인지과학, 전자상거래, 벤처학, 컴퓨터언어학, 동양고전학 등이 있다.

셋째, 전문적인 학사지도제도(Academic Adviser System)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신입생의 대학 생활 전반에 대한 학사지도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 이는 광역학부제로 입학한 학생들의 정체성과 소속감 혼란에 적극 대처함은 물론 교양교육 및 전공선택을 위한 전반적인 학사지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조치이다. 학사지도교수(Academic Adviser)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학생이 입학하여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구체적인 역할을 나열하면,

- 수강지도를 통해 교과목에 대한 정보 제공
- 전공 및 진로 지도, 휴·복학, 장학금 신청 등 대학 생활 설계지도
- 대학 생활 적응지도 등이 있을 수 있다.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은 담당 학사지도교수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폭넓은 사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Ⅲ. 핵심교육

연세대는 학부대학을 설립하면서, 교양과 전공으로 구분된 교육과정을 학부대학 교과목과 전공교과목으로 그 구분을 재편하였다. 학부대학 교과목은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전공 교과과정으로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교과목으로서, 교과목의 역할에 따라 다시 학부기초, 학부필수, 계열기초, 학부선택 영역으로 구분하여 개설하고 있다. 학부대학 교과목의 이수학점을 최소 34학점으로 하향 조정하였지만, 모든 학생에게 공통적으로 학부기초 10학점, 학부필수 12학점 및 계열기초 교과목 12학점의 이수를 의무화하여 교양교육에 있어서 핵심교육(Core Education)을 실시하고 있다.

1. 학부기초

학부기초 교과목은 연세대학교의 설립이념인 기독교 정신을 이해하고 함양하기 위한 교과목(기독교의 이해, 3학점)과 기본적인 의사소통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교과목으로 글쓰기(3학점), 실용영어회화·실용영작문(또는 영어강독 1·2, 각 2학점)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1〉). '기독교의 이해' 교과목은 단순한 기독교 교리 전수가 아닌 현대사회에서의 기독교의 역할 등에 관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글쓰기와 영어 교과목은 우리말과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증시하고 있다. 현재 영어 교과목의 경우 토플 성적에 의해 영어 교과목 학점 및 성적을 인정받고 수업을 면제받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수 면제된 학생에게는 다른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교의 이해, 3학점)과 기본적인 의사소통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교과목으로 글쓰기(3학점), 실용영어회화·실용영작문(또는 영어강독 1·2, 각 2학점)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1〉). '기독교의 이해' 교과목은 단순한 기독교 교리 전수가 아닌 현대사회에서의 기독교의 역할 등에 관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글쓰기와 영어 교과목은 우리말과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증시하고 있다. 현재 영어 교과목의 경우 토플 성적에 의해 영어 교과목 학점 및 성적을 인정받고 수업을 면제받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수 면제된 학생에게는 다른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2. 학부필수

학부필수 교과목은 인성을 함양하고, 정보화·세계화 등의 사회적 요구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개설한 영역이며, 인간의 이해·사회의 이해·자연의 이해·문화의 이해·세계의 이해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별로 7~13개 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입학 계열별 특성에 따라 4개 영역에서 각 1과목 이상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각 영역별 개설 취지 및 개설 교과목은 〈표 2〉와 같다.

3. 계열기초

계열기초 교과목은 학부대학 과정(2학기 내지 3학기) 후 본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전공을 선택

〈표 1〉 연세대 학부기초 교과목

구분	개설 교과목	이수 요건	이수 시기
기독교의 이해	기독교와 현대사회, 성서와 기독교, 기독교와 세계 문화 중 1과목	3학점	1학년
글쓰기 능력 향상	글쓰기	3학점	
영어 의사소통능력 향상	영어강독 1·2 또는 실용영어회화·실용영작문	4학점	

〈표 2〉 연세대 학부필수 교과목

영역	개설 취지	개설 교과목	이수 요건	이수 시기
인간의 이해	인간의 본질에 대해 탐구한다. 문학, 역사, 철학, 종교 등을 통해 드러난 인간의 사유체계 및 행동양식을 이해한다.	한국근현대사, 동양문화사, 서양문화의 유산, 철학과 윤리, 서양철학사, 동양의 철학사상, 문학의 이해	입학계열별로 4개 영역에서 각 1과목 이상 총 12학점 이상 필수 이수	1학년 또는 2학년
사회의 이해	인간, 삶의 조건이 되는 사회적 환경 및 재반 현상에 대해 탐구한다. 국내외의 정치, 경제,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와 현대사회의 다양한 특징을 이해한다.	현대사회와 사회학, 현대사회와 심리학, 현대사회와 경제, 현대 한국정치사의 쟁점,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현대사회의 법과 권리, 한국교육의 역사와 문제		
자연의 이해	삶의 환경으로서의 자연에 대한 자연과학적 탐구 및 현대 과학기술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해 탐구한다.	수학과 현대사회, 물리학의 현대적 이해, 현대생명론, 환경오염과 인간, 지구의 생성과 진화, 우주의 이해, 기후와 문명		
문화의 이해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 및 지역별 문화의 특징을 이해한다.	연극의 이해, 영화의 이해, 미술사, 현대사상과 문화예술, 디자인과 문화, 지구촌시대의 문화인류학, 음악사, 미디어·사회·문화의 이해		
세계의 이해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외국어 습득 및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제 2외국어(생활한문, 생활중국어, 생활독일어, 생활프랑스어, 생활러시아어, 생활일본어), 정보와 사회, 컴퓨터 입문, 전자상거래와 정보산업, NGO와 국제행정, 동서양 과학기술의 비교, 세계화시대의 국제관계, 세계평화와 국제관계		

〈표 3〉 연세대 계열기초 교과목

계열	개설 교과목	이수 요건	이수 시기
인문계열	문학입문, 철학입문, 사학입문, 제 2외국어(인문독일어, 인문프랑스어, 인문러시아어, 인문중국어, 인문한문) 중 1과목	각 계열별로 12학점 필수 이수	1학년
사회계열	경제학입문, 정치학입문, 통계학입문, 사회학입문(또는 심리학입문)		
이학계열	미분적분학과 벡터해석 1·2, 일반물리학 및 실험 1, 일반화학 및 실험 1, 일반생물학 및 실험 1		
공학계열	공학수학 1·2, 기초역학 및 실험, 기초전자기학 및 실험, 일반화학 및 실험, 일반생물학 및 실험, 유기화학		
생활과학 계열	이학계열기초 또는 생애발달 중 2과목, 사회계열기초 중 2과목		

〈표 4〉 연세대 학부선택 교과목

영역	교과목명
역사의 이해	한국사회경제사, 한국문화사, 근대유럽의 세계, 한국 근현대의 민중과 생활, 동아시아와 인류문명
철학의 이해	현대철학의 문제, 철학과 동양정신, 철학과 방법
사회과학	현대사회의 이해, 국가·사회·경제
자연과학	물질과 에너지, 지구와 우주, 물질과 생명, 생명과 환경, 지구와 환경
제 2외국어	독일어 1·2·3, 불어 1·2·3, 중국어 1·2·3, 한문 1·2, 러시아어 1·2·3, 스페인어 1·2
사상과 인간이해	한국문학의 이해, 한국어의 발달, 기독교와 타종교와의 대화, 인간학의 문제들, 동양의 인간과 윤리, 논리학, 청년기의 갈등과 자기이해, 동양철학의 문제, 여성과 문학, 중국문화와 예술, 독일문화와 예술, 프랑스문화와 예술, 러시아문화와 예술, 신약배경사, 미국문화와 예술
가치와 사회구성	문화인류학, 현대사회의 과제, 인구와 미래, 인간행동의 심리적 이해, 산업화와 노동문제, 사회구조와 자율성, 조직과 민주주의, 법과 민주주의, 법과 사회질서, 현대사회와 화법, 여성학, 남녀평등과 인간화, 정보학, 매킨컴과 현대사회, 일의 세계와 심리학, 사회학, 한국사회와 여성문제
이념과 사회체제	정의사회와 평등, 자유민주주의와 시민사회, 동구공산권 체제변동, 정치경제학, 북한의 정치와 사회, 제 3세계의 이해, 분단과 통일, 전쟁과 평화, 남북한 관계론
과학과 자연관리	생물과 인간생활, 인간과 생태, 환경과 대기, 환경의 보존과 영향 평가, 환경과 수질, 해양과 인간, 현대인의 생활영양, 성과 남녀관계, 여성과 건강
예술과 체육	동양미술사, 서양미술사, 음악감상, 음악의 기초이론, 음악과 사상, 인간과 건강, 사진촬영과 감상, 환경과 조경, 디자인의 이해, 전통음악의 이해, 생활과 원예, 테니스, 축구, 수영, 농구, 골프, 펜싱, 배구, 호신술, 체력 육성, 체력 관리, 포크댄스, 배드민턴, 탁구, 에어로빅, 소프트볼, 탈춤, 택견, 태권도, 하계 교양체육, 동계 교양체육, 스케이팅, 요가, 한국미술사
언어와 기술	초급영작문, 중급영작문, 초급영어회화, 중급영어회화, 영산문강독, 교양영문학강독, 시사영어, 중급영문해석연구, 고급영문해석연구, 고등영문법, 일본어 1·2·3, 라틴어 1·2, 컴퓨터개론, C프로그래밍, 교양PC, 인터넷과 사이버스페이스, C++프로그래밍, 수학
학제적 사고	철학적전문명론, 현대사회와 윤리문제, 문학과 사회, 언어와 생활, 법과 경제생활, 현대문화와 생명과학, 현대사회와 정신건강, 인지과학 : 마음·언어·기계, 언어와 사회, 현대사회와 영상매체, 과학과 철학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기 위한 교과목이며, 각 계열별로 4~8개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표 3〉). 또한 4과목(12학점) 이상 이수율을 의무화하여 계열 내에서 어떤 전공을 택하더라도 해당 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케 하고 있다.

4. 학부선택

필수 이수 지정은 없지만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학부선택(교양선택) 교과목을

12개 영역에 걸쳐 개설하고 있다(〈표 4〉). 2학기 이수 후(또는 3학기 이수 후)에 전공을 배정하는 제도에 따라, 1·2학년 과정에서는 학부기초, 계열기초, 학부필수 교과목을 이수하고, 3·4학년 과정에서는 필요에 따라 학부선택 교과목을 이수하게 하고 있다.

Ⅳ. 전문적인 학사지도제도의 도입

모집단위를 광역화하면서 연세대학교는 신입생

의 전공·진로지도 및 대학 생활 전반에 대한 학사지도를 전담하는 전문적인 학사지도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입학하여 학부대학에 소속되는 신입생 개개인에게는 담당 학사지도교수가 배정되고, 학사지도교수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통해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전공교과 과정으로 진입하기 전까지의 지도교수의 역할을 한다.

학사지도교수가 학사지도를 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 중 수강신청 및 학사지도를 통해 첫 만남을 시작하여, 일대일 면담을 통한 학사지도,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한 학사지도, 이메일을 이용한 학사지도, 신입생 세미나(Freshman Advising Seminar) 교과목 운영을 통한 학사지도 등의 방법이 있다.

일대일 면담을 위한 학사지도를 위해 자체적으로 면담 예약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면담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면담을 통해 전공 및 진로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더불어 대학이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자원(resource)의 정보를 통해 자신의 대학 생활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의 이메일 및 휴대전화 번호를 사전에 파악하여, 중요한 학사일정에 대한 이메일 공지,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지도교수 서신 발송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학사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학사지도교수는 신입생 세미나 교과목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비록 정규 교과목은 아니지만, 담당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신입생 세미나 교과목의 내용은 ①대학의 본질과 대학생으로서의 발달과업 ②학습방법(Study Skill) ③발표방법(Presentation Skill) ④시간관리(Time Management) ⑤나에 대한 이해

(Self-Awareness) ⑥성격과 진로(Personality and Career) ⑦진로정보 구하기(Career Information Search) ⑧진로계획 수립하기(Career Planning)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입생은 자율적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대학 생활의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시점이기에 이러한 신입생 세미나 교과목을 통해 대학 생활에 적응하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신입생 세미나는 정규 교과목으로 개설되어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는 대학이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정규 교과목으로 개설된 곳은 한 곳도 없으며, 2001학년도 1학기 수시모집 예비신입생을 대상으로 학점이 없는 비정규 교과목으로 개설하여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V. 맺는 말

21세기는 지식 정보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의 시대는 전통적인 직업과 더불어 다양하고 새로운 직업들이 발전을 하게 될 것이며, 또한 오늘의 지식이 내일에는 쓸모 없는 것이 될 정도로 빠른 변화가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대학의 교육목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는 대학교육 전반을 통해 달성되어야 하지만, 특히 핵심교육에 기반을 둔 교양교육을 통해 기초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능력 바탕 위에서 전공분야에서의 전문적인 지식 습득은 그 의미를 더할 수 있다.

그간 대학에서 실시해 온 교양교육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교양교육 운영의 주체가 불분명하여 해당 학과의 이해관계에 의해 과목이 개설되고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말미암아 시대적 변

화에 따른 교과목 개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왔다. 또한 교양교육의 성격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 전공기초에 준하는 과목이 버젓이 교양강좌로 개설되기도 하였다. 또한 교양교과목 영역 구분에 있어서도 체계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역별로 단순히 과목을 나열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도 많았다.

교양교육은 대학교육에 있어 중요한 한 축을 구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기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양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간의 왜곡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단순히 졸업하기 위한 필수학점에 불과하며 전공 교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교양교육 없이는 제대로 된 전공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만 교양교육이 대학교육의 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교양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행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다. 교양교육 운영을 전담할 기구를 설립하여 교과목 개설에 있어서 변화하는 시대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기구는 교양교육의 중요성 및 각 대학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핵심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영역 재조

정뿐만 아니라 각 영역에 적합한 교과목을 개발하여 개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에게 교과목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대학 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학사지도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고등학교와 전혀 환경이 다른 대학환경에서 학생들은 성공적으로 대학 생활을 운영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체계적인 설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미래의 사회를 이끌어 갈 지도자 양성이라는 대학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인기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경영대학원 및 미국 New York University MBA에서 경영학 석사, New York University에서 경영학 박사(Ph.D : 회계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연세대 경영연구소장과 한국회계학회 회장, 한국 금융감독원회계제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로 학부대학장, 한국공인회계사회 심의위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계·세무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회계감사』, 『회계원리』, 『원가회계』(역) 등과 『사회회계기준에 관한 연구』, 『효율적인 자본시장과 윤리적인 재무공시』 외 여러 편의 연구 논문이 있다.

